

[20차시] 아동성학대에 대한 이해

[학습내용-1] 아동성학대에 관한 잘못된 신념들

상담원이나 교사와 같이 성학대피해아동을 만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성학대의 책임을 성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잘못된 신념들은 피해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피해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개입을 가로막는다.

●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성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몽상을 한다.

☞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낼 수는 있지만, 자신이 보거나, 들었거나, 했거나, 경험한 범주 안에서 가능하다.

● 성학대는 자주 일어 나는 것은 아니다

☞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부터 집계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의하면 제 13차 공개까지 전체 성범죄 피해자 1만4천3백98명 중에서 26.1%인 3천7백62명이 13세 미만으로 나타나,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6%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학대 발생률에 대한 국제적 연구에 의하면 여자아이 3명중 1명이, 남자아이 6명중 1명이 18세 이전에 성학대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 어떤 문화에서는 근친강간이 용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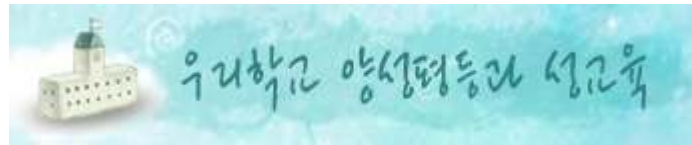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 문화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이 용납될 수는 있지만, 어떤 문화에서도 아이와 성교하는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근친상간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긍정적임과 동시에 합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 어른들이 ‘예쁘다’고 표현하면 아이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어른들의 말을 믿거나, 애정표현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그것이 유일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성관계의 의미를 알게 될 때는 심한 충격으로 외상을 겪게 된다.

●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인남자를 유혹한다.

☞ 어른들의 개념으로 ‘부추기거나 유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간혹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20~30대 어른들- 교사 -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어른들이 경계를 설정해 줄 책임이 있다.



[20차시] 아동성학대에 대한 이해

◎ 아동이 쾌감 등 신체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학대가 아니다.

☞ 성적인 자극에 대해 신체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적 생리기능이 정상이라는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아동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 성학대피해아동은 눈에 띄는 상처가 남을 것이다?

☞ 아동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금품이나 선물, 놀이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추행을 당한 경우 파열이나 치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쉽게 아물어 흔적이 없을 수도 있다.

◎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파트너 또는 남편, 다른 사람이 아이를 성학대 한 사실을 알고 있다.

☞ 이 잘못된 신념은 어머니 자신들이 믿고 있다. 내가 집에서 살림을 살고 있으므로, 아이와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을 잘 때나, 시장갈 때 등 비는 시간이 있다. 성학대는 항상 염두에 두지만 비밀리에 일어 나는 일이므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남자들은 그들의 부인과 성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가해자중 많은 사람들이 기혼자들이므로, 아내와도 자고, 아이와도 자면서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한다. 성관계를 안하고도 살고 있는 미혼남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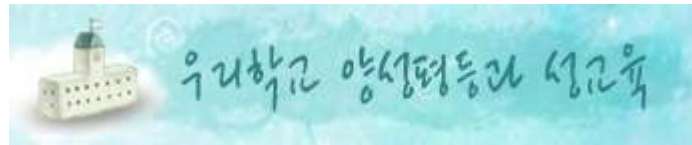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 성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정신병을 갖고 있거나 더럽고 나이 많은 사람이다.

☞ 정신병의 유무가 아니라, 현실감각, 상황판단능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이하게 생긴 사람만이 아동을 성학대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성학대가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므로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 동성에 의해 성학대를 당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자라서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

☞ '자신의 성적체성이 무엇인가'가 '어떤 성경험을 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학대의 경험으로 동성에게 끌리는 것인가? 자문해 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자신의 성향이 그렇게 변하거나 되는 것은 아니다.



[20차시] 아동성학대에 대한 이해

◎ 남성은 성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

☞ 대부분의 성학대 가해자는 남자이지만, 5%정도는 여자도 있다. 가해자가 남자일수도 여자일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남녀가 정해져 있지 않다.

◎ 가해자들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다?

☞ 알콜이나 약물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피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약물이나 알콜문제라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학습내용-2] 아동성학대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는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성학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아동성폭력과 아동성학대라는 용어가 상호교환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는 **아동성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1)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정의

우리나라 성폭력특별법에서는 (8조 2항)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어린이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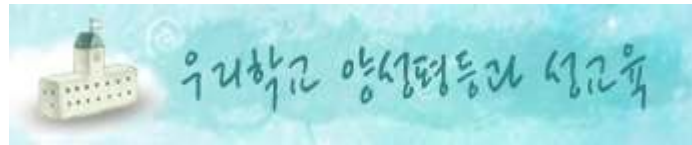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아동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에 내포된 결과까지 이해하는 알고하는 동의를 불가능한 성적행동 또는 법 혹은 사회적 금기를 위반한 성적 행동에 아동이 연루된 것을 의미한다. 즉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으로 아동과 성인 또는 발달 상 책임관계, 신뢰, 힘의 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사이에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행위를 아동 성학대라 한다.

(3) 아동복지법에서의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 행위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20차시] 아동성학대에 대한 이해

(4) 아동성학대 개념 정리

힘이나 권위를 가지고 아이에게 성적행동들을 가하는 것으로 신체적 위협, 성적인 행동이나 말, 훔쳐 보는 것, 자위, 구강성교, 질 또는 항문으로 삽입하는 것, 성기 아닌 다른 물건, 포르노에 노출하는 것을 아동성학대라 한다.

즉 아동성학대란 아동을 상대로 성적인 만족을 위해 ,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행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에서 ‘힘의 차이’란 물리적인 힘의 차이, 나이의 많고 적음, 지적 인 수준의 차이, 사회적인 위치 등을 포함한다. 성학대는 아동을 길들이며 접근하는 매우 계획적인 치밀한 범죄행위이다.

[학습내용-3] 아동성학대의 지표

성학대 피해아동은 성학대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행동적/정서적 **증상**을 나타낸다. 이런 증상들은 성학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므로 드러나는 증상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나 사정이 필요하다. 성학대 피해아동의 특징적인 행동을 이해하면 성학대 피해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성학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1) 신체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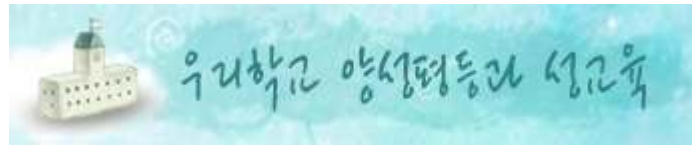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아이들의 대다수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동성학대가 의심되는 신체적지표는 다음과 같다.

- 생식기, 항문, 입가의 통증 또는 상처 및 혈흔
- 앉거나 걷는 것을 거부해 함
- 성병
- 임신
- 잦은 방광염, 요도염
- 속옷이나 옷, 몸에 배설물 얼룩이 있거나 피가 묻었을 때
- 항문 파열 혹은 상처

(2) 행동적/정서적 지표

성학대의 행동적/정서적 지표와 증상의 대다수는 신체적 학대나 방임, 폭력에 대한 위축, 질병, 부모이혼, 가족의 죽음 등과 같이 다른 이유에서 기인하는 외상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아동들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성학대 증상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고 해서 성학대 피해를 경험했다고 할 수 없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성학대의 행동적/정서적 지표 중 언어적 폭로와 정상을 벗어난 성행동은 다른 어떤 증상보다도 성학대피해경험에 대한 확실한 증상이다.



[20차시] 아동성학대에 대한 이해

- 공포와 두려움 (혼자 있는 것, 어둠, 특정 사람, 특정 장소)
- 생리적인 반응 (과잉경계, 고통이나 깜짝 놀라는 반응, 집중력 부족 등)
- 퇴행적 행동 (유뇨/유분, 손가락 빨기 등)
- 선호하던 활동을 즐기지 못함
- 수면 장애
- 성격 변화
- 신체적 불평
- 때때로 멍하게 있음
- 행동변화
- 학습장애
- 언어폭로
- 정상행동을 벗어난 성행동

[보충학습 : 언어폭로]

아동들은 ‘집에 가기 싫어요’ ‘나는 어쨌든 아빠가 싫어요’ ‘난 그 사람에 대하여 알아요’ 등의 애미모호한 표현으로 어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약간의 힌트를 준다. 약간의 힌트지만 아동이 ‘자신이 성적으로 관계되었다’고 말할 때는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미국의 ‘어떻게 아이들이 말하는가’(1991)라는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적 폭로과정을 조사하고 다음의 것들을 발견하였다.

- 아동의 26%만이 적극적 표현에 의해 드러나고 74%는 우연히 드러난다
- 아동의 75%가 학대에 대해 물어 보았을 때 초기에는 부인한다.
- 아동의 78%가 폭로를 통해 부인하거나 두려움이 증가한다.
- 마지막에는 96%정도가 폭로한다.
- 아동의 22% 정도가 폭로를 철회하지만, 이중 92%는 다시 학대사실을 말한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즉각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성학대를 드러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전형적인 인터뷰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